

울산, 대구지역 대학생의 결혼 전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계획

양 세 화(울산대 교수) · 김 묘 정(울산대 연구교수)

본 연구는 울산과 대구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졸업 후 결혼 전까지의 주거계획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미혼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시장 상황과 이들의 주거 요구와 선호 등을 고찰한다. 둘째, 실증연구를 통해 울산과 대구지역의 대학생들의 결혼 전 독립생활에 대한 희망 여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한다. 셋째,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주거선호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변인을 파악한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울산과 대구지역에 위치한 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인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과 가족사항, 현 주거상황, 독립생활 희망 여부와 이유, 그리고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선호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총 267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7.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주거상황 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결혼 전 독립생활 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규명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선호 특성과 관련변인 분석은 교차분석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위해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56.9%가 대학 졸업 후 결혼 전까지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이유는 성인으로서 부모로부터의 독립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독립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가족과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장자녀일 경우 또는 현재의 주거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둘째,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혼자 생활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43.3%로 이는 친구 등의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겠다고 답한 비율(55.6%)보다 낮았다. 동거가 가능하다고 답한 경우 과반수(55.3%)는 1명이 적당하다고 대답하였다.

셋째, 독립생활을 위한 주택의 규모에 대해서는 33-66㎡(10-20평)를 가장 적당한 것으로 답하였고, 주거유형은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생활을 위한 가구는 옷장, 침대, 책상과 의자, 식탁과 의자의 순으로, 가전기기는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TV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전세 및 월세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저렴한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등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자금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지원받으려는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두드러졌지만 일부는 자신의 노력을 통한 독립의 의지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주거공간의 구성에 있어서는 침실과 독립된 부엌 및 욕실이 있는 형태를 가장 선호하였고, 주거의 위치 선택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혼자만의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원룸 같은 단순한 공간구성의 주거를 선호하였으며, 친구 등과의 동거도 가능하다고 여기는 경우는 원룸보다는 공간구성이 다양한 주거유형을 선호하였다. 한편 주택규모에 있어서는 혼자 거주하더라도 무조건 작은 규모이기보다는 적절한 규모를 갖춘 공간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 전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미혼 1인 가구가 주택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이 대응함에 있어 기초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록 결혼 전일지라도 이들이 안정된 주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총체적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